

공단지역과 인접한 주거지역 주민들의 선호 공원녹지 분석 - 대구광역시 서구를 중심으로 -

김수봉·류연수*·이정연**

계명대학교 환경계획학과, '대구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2006년 8월 21일 접수; 2006년 12월 10일 채택)

Analysis of the Green Park Preference of Residents Adjacent to Industrial Area

Soo-bong Kim, Yeon-su Ryu* and Jeong-yeon Le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Keimyung University, Daegu 704-701, Korea

*Daegu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 Daegu 704-701, Korea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702-701, Korea

(Manuscript received 21 August, 2006; accepted 10 December, 2006)

The paper aims to highlight residents' preference of park close to industrial area in Seo-gu, Daegu City. Questionnaire survey was the main research method for the study from June to August last year. There were 2 survey questionnaires, one is for satisfaction degree regarding residents' general park use and the other is especially for vest-pocket use. For the research, 150 questionnaires were surveyed for each park users(total 300 questionnaires) and 270 questionnaires are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The analysis showed that small vest pocket sized park was the proper model for close to industrial area. The majority residents preferred small park close to a residential area, also 77% of residents who use vest-pocket park replied that they live within 10 minute walking distance from there. In the case of Seo-gu, there were several small vest pocket sized parks which can satisfy the residents' preference. Therefore the plan which utilize them positively is necessary.

Key Words : Green Park Policy, Preference, Vest Pocket Park, Access probability

1. 서론

산업화와 도시화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도시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도시내 적정 규모의 도시공원 확보와 접근 가능성에 대한 관심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도시의 공원정책은 커다란 전환점에 처해있다. 쾌적한 주거환경 및 공원녹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는 소득증대, 교육수준 향상, 여가시간 증대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사회·경제적인 가치기준 변화에 의한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제

는 지역의 행정 및 제반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환경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에 새로운 방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공원을 단지 도시계획 시설로만 간주하지 않고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의 기반이자 다양한 사회활동을 도모하는 거점공간으로 개발하고자 도시공원을 양적, 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각 도시와 지역에서 새로운 관심사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그 계획과 개발에 있어서 이용자의 공원녹지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도시의 경관특성과 시대의 사회적 특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즉, 도시공원은 이용자의 의사, 도시 또는 지역의 공간적·사회적 특성 그리고 그 시대의 사회상을 함께 고려할 때 진정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창조·제공될 수 있다.

Corresponding Author : Soo-bong Kim,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College of Environment, Keimyung University, Daegu 704-701, Korea
Phone: +82-53-580-5254
E-mail: sbkim@kmu.ac.kr

특히, 대구광역시 서구(西區)와 같이 대규모 공단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 조건을 가진 지역에서는 도시민의 이용이라는 측면 뿐 아니라 지역의 환경개선과 도시 생태계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도시공원이 가진 효용성은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단지역과 인접해 있는 주거지역 주민들의 선호 공원녹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도시공원에 대한 시대적 요구 및 사회의식을 함께 고려하여 도시공원의 개선과 확충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이르러 급속한 도시화와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겪으면서 단기간에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그 결과 자연과 과학과 도시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부분의 도시공원이 이 시기에 지정·고시되었으며 대구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균형발전이나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점성장방식의 개발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이 다른 모든 정책이나 사업보다 우선시되어, 사회 전반에 있어서 각종 정책제안과 대규모의 개발 사업이 잇따라 발표되고 사업기간의 단축이 앞 다투어 추진되었다.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구성요소이자 시대상을 반영하는 문화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도시공원 역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정·고시되었다. 그 결과 이 시기에 지정된 도시공원은 주로 예로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명승지나 역사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조성과정에 있어서도 대부분 종합공원의 성격을 띤 대규모의 공원으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공원들은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대중을 위한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공원개설 본래의 취지를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대부분 공원녹지에 대한 인식 부족과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조성계획이 늦어지거나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후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일부 공원이 새롭게 지정되고 기존에 지정·고시되었던 도시공원이 뒤늦게나마 개발되었으나, 이용자의 요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제도를 만족시키는 일반적인 형태로 조성되어 갈수록 다양해지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도시내 휴식공간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가 질적, 양적으로 부족하며, 고밀도로 개발된 도심에서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새로운 공

원녹지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공원녹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변병설·이병준, 2002; 박인재, 1990; 정판수, 2005). 즉 소규모 공지나 자투리 땅 등의 잠재공간을 소공원의 성격을 지닌 쌈지공원으로 조성하거나(정은주, 1998) 건축물 주변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이를 녹화하고(이민식, 1996), 옥상이나 지하공간 상부 등의 인공지반을 녹화하는 등(차명숙, 2004; 김영빈, 1996) 도심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단지역과 인접한 주거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공원녹지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공단지역의 상당한 면적이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서구민(西區民)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설문조사 대상은 서구에 거주하는 10세 이상 70세 미만인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주부, 직장인,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전체 조사 대상자는 남성과 여성의 비를 균등하게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5년 6월에서 8월까지 약 3달에 걸쳐 서구민의 공원녹지 이용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구에 위치한 쌈지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를 통한 현재 쌈지공원유형의 만족 정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조사 내용은 서구민의 공원이용 만족도 관련 설문과 쌈지공원에 관한 설문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각 150부씩 총 300부를 현장에서 직접 배포하였으며 그 중에서 회수된 270부(90%)를 SPSS ver 11.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서구의 도시공원 현황분석

전형적인 구릉지로 달서천과 금호강 하류지역에 위치해 있는 서구는 경부, 구마, 88, 중앙고속도로의 관문으로 대구의 중서부 교통의 요충지이며, 섬유산업, 염색단지, 기계공업 업체가 집중되어 있어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서대구 화물역 및 지하철 2호선의 개통으로 대구의 새로운 상업중심권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 지구가 산재해 있어 이에 따른 기반시설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서구의 계획공원 면적은 2005년 7월 현재 2,132,036㎡로서 서구 행정구역 면적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시설공원 면적이 2,124,633㎡로서 공원시설율이 매우 높은 상태이지만, 대상지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이 1,700,000㎡로서 전체 시설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이용율이 높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의 시설면적은 429,013㎡로 대상지 전체 시설공원 면적의 약 20%에 불과하다.

1인당 공원면적으로 환산해 보면 시설공원 면적은 1인당 8.4㎡로서 도시공원법상 면적기준(6㎡)를 초과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 이용빈도가 높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하면 1인당 공원면적인 1.7㎡(Table. 1)가 되어 면적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그러나 서구는 전국에서 최초로 행정기관인 구청의 담장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녹지가 부족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대구시 차원의 공원녹지 관련계획과 녹화사업에 큰 흐름을 형성하였으며, 도심의 공원녹지 확충방안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서구는 2000년 이후 건강한 도시생태환경의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마련과 지역의 이미지 제고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 증대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포화상태에 이른 밀집된 도시공간에서 새로운 공원녹지 용지를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공공시설이나 대형건축물 이적지를 공원화하고, 개발여건이 부적합하여 방치되던 자투리 공간을 녹지대로 조성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존의 공원녹지 공간을 재정비하여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공원녹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나 도로변에 위치한 자투리 공간은 협소한 면적으로 인해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으며 관리소홀로 인해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도심의 혐오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서구는 이러한 공간을

소공원의 성격을 지닌 쌈지공원으로 적극 개발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는 점적인 녹지공간을 늘려나감으로써 지역 전체의 녹지네트워크 구축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2. 서구민의 여가 및 도시공원 이용실태

4.2.1. 공원의 양적 만족도

서구민의 여가의식과 그에 따른 공원녹지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평일 날에 거주지 인근에서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한 공원 등이 시설에 만족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보통정도라고 답변한 주민이 44.4%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분하다고 만족하고 있는 응답자가 3.1%, 매우 만족하고 있는 응답자가 6.1%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공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31.3%,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10.1% 즉 현재 공원의 수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응답자가 41.4%에 해당될 만큼 서구민들이 느끼는 공원의 양적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상당수의 응답자가 공원의 양적 만족도를 보통이라고 대답하였으나 만족한다는 의견보다는 부족하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월등히 많았으므로 향후 서구의 공원녹지의 정책에서 꾸준한 공원녹지의 양적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Fig. 1).

4.2.2. 선호하는 공원 유형

서구민들이 선호하는 공원유형의 경우는 우선 응답자의 33.3%가 거주지 인근에 조성되어 있어 지역 주민이 접근하기 좋고 이용에 편리한 공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소규모 놀이 공간으로 시소·그네·미끄럼틀·철봉 등 어린이 놀이시설과 소규모 휴게시설들로 이루어진 공원을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20.2%, 비교적 규모가 크고 여러 지역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원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0.2%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과반수 이상의 서구민들은

Table 1. generalization of Urban Parks in Seo-gu, Daegu

Classification		Total(Planned park)			Complete park				Incomplete park	
		Number	Area(m ²)	Area a person(m ²)	Number	Area(m ²)	Complete rate (%)	Area a person(m ²)	Number	Area(m ²)
Sum		24	2,132,036	8.4	23	2,124,633	99.7	8.4	1	3,030
Urban park	Urban natural park	1	1,700,000	6.7	1	1,700,000	100	6.7	-	-
	Neighborhood park	4	388,492	1.5	4	388,492	100	1.5	-	-
	Children park	19	43,551	0.2	18	40,521	93.0	0.2	1	3,030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공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갖춘 소규모 공원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서구 공원 녹지 계획에서는 소규모의 공원을 주거지 근접하게 균등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4.2.3. 공원 이용 빈도 및 이용 시 체류시간

공원의 이용 빈도에 대해서는 한 달에 1-2회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주일에 1-2회 이용한다는 대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공원이용 시 선호하는 요일과 비교해 볼 때, 상당수의 서구민이 휴일이나 주말에 공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볼 때, 한 달에 1-2회, 그리고 일주일에 1-2회 공원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용 빈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원 이용 시 체류시간을 살펴보면, 공원에서 1-2시간을 체류한다는 응답자가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시간이내 라는 응답은 28.6%, 2-3시간 사이라는 응답은 24.7%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서구민들이 소규모의 공원유형을 선호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상당수의 구민들은 접근성이 좋은 소규모 공원에서 1시간 전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2.4. 현재 이용하는 공원까지의 소요시간 및 선호하는 이상적인 소요시간

서구민은 주로 이용하는 공원까지의 소요시간이 응답자의 47.4%가 30분 정도 걸린다고 대답하였으며, 응답자의 25.6%정도만 10분 이내에 위치하는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서구민들은 대체로 도보로 30분정도 이내의 공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다시 말하면 서구는 주거지내에서 도보로 30분 정도의 거리에 대체로 공원이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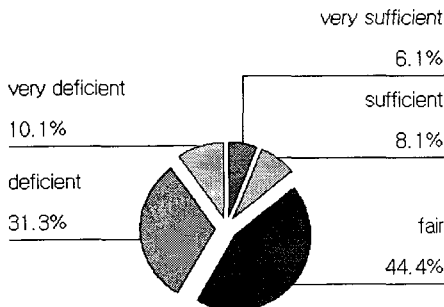


Fig. 1. Quantitative satisfaction degree of park.

반면에 주거지 인근 혹은 직장 인근에 새로운 공원이 조성된다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공원까지의 소요시간에 대한 응답은 공원까지 도보로 10분 이내를 희망한다는 응답자가 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5분과 5분 이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구민들이 이용하는 공원까지의 방문시간인 30분정도 이내가 가장 높은 결과치로 나타난 것과 서구민들이 선호하는 이상적인 소요시간 10분이내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현실과 주민들이 바라는 이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서구 공원녹지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Fig. 2).

4.2.5. 공원 이용 시 어려운 여건

공원 이용을 어렵게 하는 여건에 대해 살펴보면, 가까운 거리에 공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혹은 위험 요소로 인해서 라는 응답도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서구민들은 공원 이용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을 공원부족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시설이 미비한 점과 그에 따른 위험 요소 등을 지적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거지 인접 지역에 균등하게 공원을 배치하여 주민들이 공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공원 내 시설도 추가적인 점검과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4.3. 서구민의 썸지공원 선호도 및 만족도 분석

상기의 결과를 통해 서구민들은 주거지 인근의 소규모 공원을 훨씬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소규모 공원 유형 중의 하나인 썸지공원을 대상으로 서구민들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실제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녹지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태파악을 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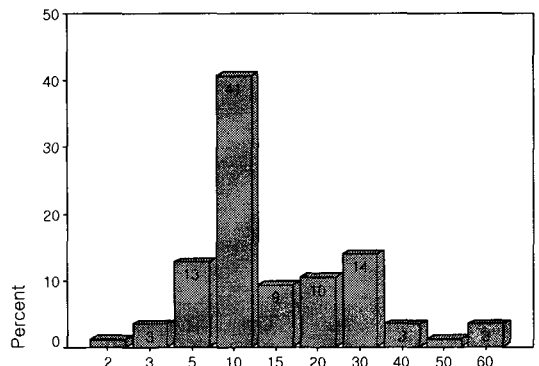


Fig. 2. The time required ideally up to park.

4.3.1. 공원까지의 소요시간 및 접근성

쌈지공원을 이용하는 서구민 중에서 77%정도가 공원까지의 소요시간이 도보로 10분 이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리고 20분 이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15%로 나타났다. 쌈지공원은 공원유형의 특성상 규모는 작지만 이에 비해 인근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매우 높으므로 공원까지의 소요시간도 상당히 짧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상기의 분석결과 중에서 서구민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원까지의 소요시간이 10분 이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쌈지공원은 서구민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공원 배치와 매우 근접하므로 앞으로 적극적인 활용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Fig. 3).

공원의 접근성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0%가 접근성에 만족하거나 혹은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면에 만족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공원까지의 거리와 접근 편의성 정도로서 분석해 볼 때 이를 만족시키는 공원 유형은 현재의 쌈지공원 형태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Fig. 4).

4.3.2. 쌈지공원의 일반시설 및 자연성과 수목의 적절성

쌈지공원을 이용하는 서구민으로서 전체 응답자의 53.3%가 쌈지공원 내 일반시설은 그 개수가 많고 크기도 적당하며 적절한 곳에 잘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30%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불만족 혹은 매우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만족한다고 대답한 응답자 16.7%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쌈지공원이 소규모이며 편의시설 위주로 조성되고 있어서 공원내에서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는 데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자도 35%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쌈지공원 내 수목과 잔디의 만족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상당수의 쌈지공원은 대체로 인공적인 시설로 공간이 구성된 곳이 대부분이므로 서구민들도 이러한 쌈지공원을 이용할 때 자연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쌈지공원의 자연성 부족과 같은 맥락에서 연계해 볼 때, 결국 수목과 잔디의 부족으로 인해 비록 소규모공원이지만 이용객들이 공원에서 경험하고자 하는 자연성을 느끼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구의 공원녹지정책에서는 소규모의 쌈지공원이라 할 지라도 인공적인 불투수성 포장재 위주의 인공시설 보다는 투수성 포장재로의 전환과 수목, 잔디 등을 꾸준히 도입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만족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4.3.3. 쌈지공원 이용 시 체류시간

쌈지공원 내 체류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44.1%가 30분 이내라고 대답하였으며, 1시간 이내라는 응답이 30.5%, 1시간30분 이내와 2시간 이내가 11.9%로 분석되었다. 특히 쌈지공원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체류시간 또한 일반적인 공원녹지에서 일반적으로 1-2시간을 체류한다는 이용실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체류시간이 훨씬 짧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쌈지공원 내 시설 개수와 규모 등을 고려한 공원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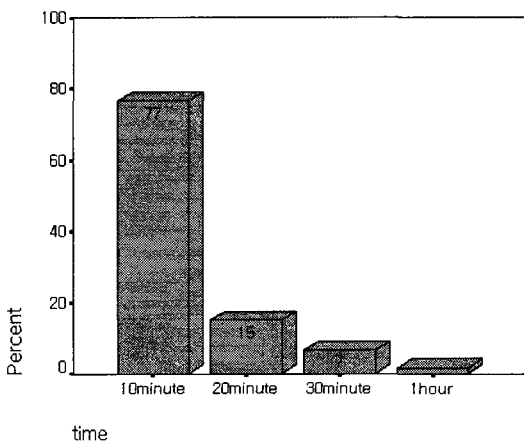


Fig. 3. The time required up to vest pocket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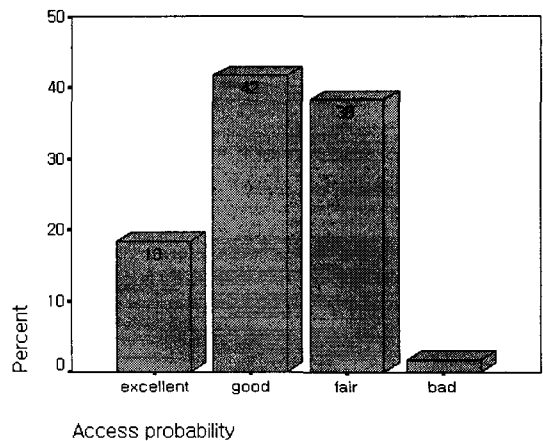


Fig. 4. Access probability of vest pocket park.

4.4. 정책제안 및 개선방안

4.4.1. 일반적인 공원계획 측면

상기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공단지역과 인접한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서구민들은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 특히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공원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위치해 있는 큰 규모의 화려한 공원 보다는 어린이들도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시설을 갖춘 소박하지만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소규모 공원 형태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공단지역과 인접한 주거지역의 공원녹지 계획 정책방향은 소규모의 공원을 주거지에 근접하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도입하고 있는 주거지 내 소규모 쌈지공원의 역할이 주민들의 공원녹지 선호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충분한 보완과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공원부족에 따른 공원 이용의 어려움과 시설 미비점 등은 주거지 인접한 지역에 균등하게 공원을 배치하고, 또한 공원 내 시설도 지속적인 점검과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4.2. 쌈지공원 계획 측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에 문화부가 신설되면서 서울시와 문화부가 이른바 달동네라 불리는 저소득 고밀주거 지역에 문화 및 복지를 위한 장소로 'vest pocket park'의 순수한 한국적 표현인 쌈지공원을 조성하면서 한국적 도시 소공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96년 '서울시 마을마당 조성계획'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마을단위의 작은 공유토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녹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대화와 휴식의 장소로 다양하게 조성하고자 사업을 시행하면서 쌈지공원과 같은 소규모의 공원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¹⁾

대구광역시 서구는 현재 주택밀집지역과 공단지역을 끼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을 공원녹지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서구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서구 내당 3동 884-3번지 외 28개소에 3억여원을 투자하여 쌈지공원을 설치하였으며, 이의 총면적은 2,498㎡(약 756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도 사업

비 1억3천만원을 들여 쌈지공원 19곳을 조성하였으며, 2006년에도 쌈지공원 10곳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에 있다. 이러한 쌈지공원의 조성은 도시지역 소규모 자투리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효과적인 여가공간의 장을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²⁾

또한 서구의 특성과 도심의 신규 공원용지 확보의 불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서구의 쌈지공원 조성사업과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장허물기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도 도심의 녹지공간 확보와 함께 열린사회 분위기 확산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쌈지공원과 담장허물기 사업은 법제도권 밖에서의 새로운 공원녹지 확보방안으로 근린주민에게 휴식과 녹지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쌈지공원 조성을 담장허물기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참여유도와 지원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서구 그리고 나아가 공단지역과 인접한 주거지역의 공원녹지계획에 있어 주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4.4.2.1. 지역특성을 반영한 쌈지공원의 공급균형도모

서구에는 규모가 큰 도시자연공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공원의 양적인 지표가 되는 1인당 공원면적은 대구의 다른 구에 비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반해 생활권 내에 있어 실질적으로 주민의 이용이 용이한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의 면적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공원의 양적 만족도는 크게 떨어지며 공원 부족이 공원이용 시 가장 어려운 여건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공원을 가장 이상적인 공원형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원의 크기와 시설보다는 유치권과 접근의 용이성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규모는 작지만 도심 곳곳의 자투리 공간을 공원화한 쌈지공원의 조성이 주민의 요구와 현실을 고려한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성된 서구의 쌈지공원의 분포 실태를 살펴보면, 주로 주거지와 상가 밀집지역인 동쪽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구는 대구모의 공단지역과 과밀하게 개발된 주거지역이 공존하여 도시공간계획의 성격이 상반되는 두

1) 김도경(1999), 도시 내 자투리 땅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식물·인간·환경학회지 2(2) : 45-46

2) 영남일보, 2005년 3월 8일자 및 12월 21일자 사회면

공간으로 양분되는 도시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쌈지공원 조성에 있어서도 공단지역의 경우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완충녹지를 확보하여 도시환경립의 성격으로 개발하고, 주거지역의 경우는 환경생태적 기능뿐만 아니라 주민의 이용과 도시의 경관 향상이라는 측면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지역의 공간적 특징에 적합하도록 계획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원의 이용률 제고뿐 아니라 환경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도 한 지역에 편중된 형태나 몇몇의 대규모의 공원 조성보다는 소규모의 공원을 고르게 분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앞으로 서구의 공원정책에 있어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쌈지공원 공급의 균형 도모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4.4.2.2. 쌈지공원의 시설개선을 통한 효율 증대

현재 쌈지공원은 조성자체에 높은 의의를 두고 있는 시점으로서 공원시설과 공간구성의 만족도 등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민의 쌈지공원 이용 만족도를 분석해 보더라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쌈지공원이 시설 위주로 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공원 이용에 있어 자연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쌈지공원의 자연성 부족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수목과 잔디공간도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비록 규모가 작은 소공원 형태이지만 이용객들은 여기서도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원형태를 갈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규모의 쌈지공원이라 할지라도 인공적인 불투수성 포장재 위주의 인공시설보다는 투수성 포장재로의 전환과 수목, 잔디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공단지역과 인접한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서구민의 상당수는 휴식을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혼자 공원을 이용하거나 혹은 가족과 동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쌈지공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조용하고 아늑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계획과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도시 공원녹지는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이라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매커니즘인 동시에 그 자체로도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로서 그 기능과 효과는 인간의 삶의 질을 극대화 시키는데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공원녹지의 확보와 관리에 있어서 이용자의 요구와 지역

적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공원녹지공급의 관점에서 지역특성과 도심의 신규 공원용지 확보의 불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공원녹지의 균형공급과 면적확보를 위해서 법제도권 밖에서의 공원녹지 확보방안과 지역내 녹지공간을 활용한 연계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쌈지공원 조성계획은 도심의 녹지공간 확보라는 측면뿐 아니라 지역민에서 가깝고 친숙한 공원녹지 조성과 개방적인 도시 분위기 조성 및 이웃 간의 교류증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도시에서 공간조직 체계에 따라 공원녹지를 계획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의 도시 공간 구성의 성격과 지역적 특징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도시의 생태와 환경, 경관, 주민의 이용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서구는 주거지역과 공단지역으로 양분되는 도시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주거지역은 서구민들의 이용에 초점을 맞추어 공원의 유지관리, 시설개선, 운영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공단지역은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해 녹화중심으로 공원의 정비 방안을 수립하고, 공장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 도입을 통해 자연성이 높은 자연형 공원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도시공원과 함께 새로운 유형으로서 쌈지공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각 유형별로 흡입력 있고 특징있는 공간으로 정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또한, 도시의 공간구성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구의 공원녹지 위계 및 위상을 정립하여 서구 전체뿐 아니라 광역적 차원에서 대구시의 공원녹지 공간의 균형적 배분까지도 고려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실제로 대다수의 서구민들은 여가시간이 주어지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공원을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공단지역과 인접한 주거지역인 서구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향후 공원녹지와 관련된 예산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인력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원으로 충원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대구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개발사업비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 1) 김도경, 1999, 도시 내 자투리 땅 활용에 관한

- 연구, 한국식물·인간·환경학회지, 2(2), 45-46.
- 2) 김수봉, 장원동, 1999, 대구시 도시공원의 계획·정책방향연구, 환경과학논집, 4(1), 21-51.
 - 3) 김영빈, 1996, 지역 특성에 따른 근린공원의 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 지하공간 개발의 측면에서, 건국대학교, pp.1-5.
 - 4) 박인재, 1990, 都心地 公園 및 綠地의 擴大戰略에 關한 研究, 한양대학교, pp.1-8.
 - 5) 변병설, 이병준, 2002,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녹지확보방안, pp.1-3.
 - 6) 서울특별시, 1995,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방향 연구, pp.3-6.
 - 7) 영남일보, 2005년 3월 8일자 및 12월 21일자 사회면.
 - 8) 이민식, 1996, 都市公園造成과 建築物公開空地確保를 爲한 制度 및 適用에 關한 研究, 강원대학교, pp.4-7.
 - 9) 정은주, 1998, 都市小公園確保를 위한 潛在資源發掘 및 開發方案에 關한 研究, 동아대학교, pp.1-4.
 - 10) 정관수, 2005, 都心地 綠地 造成 및 管理에 對한 市民意識 分析 : 沙上工業地域 隣近地域을 對象으로, 부산대학교, pp.1-4.
 - 11) 차명숙, 2004, 都市 屋上綠化 活性化를 위한 基礎 研究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pp.1-4.